

쿠데타 세력 옹호하는 최민호 시장은 즉각 사퇴하라!

최민호 시장은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의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의 내란죄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하라는 해괴망측한 망언을 내놓았다. 12.3 윤석열 내란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추운 길에서 밤을 새우며 외치는 국민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국민의 목소리를 저버리고 이를 방해하는 세력은 윤석열 내란수괴의 친위 쿠데타를 옹호하는 내란 동조 세력일 뿐이다. 세종시민의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적 영달만을 위해 쿠데타 세력과 손잡는 모습을 시민들이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지난 3일 공수처가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에 실패하는 모습이 전 세계로 생중계됐다. 직무가 정지되고 내란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은 경호처를 방패 삼아 국가 공권력을 마비시키며 계엄령에 이어 또다시 대한민국을 조롱거리로 만들었다. 윤석열은 지금 당장 체포되고 구속 기소되어야 마땅할 중범죄자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재발부된 현시점에서 대한민국 국격 회복을 위해 강력한 공권력을 동원해 윤석열을 체포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명령임을 부정하는 국민의 힘이 아직도 목소리를 내고 있음에 개탄스러울 뿐이다.

최민호 시장은 내란 선동과 쿠데타 세력을 옹호하는 모든 정치적 행보를 즉각 중단하라! 세종시민들에게 석고대죄하며 시장직에서 즉각 사퇴하라!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중심이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가진 도시를 이끄는 시장이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내란 행위에 동조한다는 사실은 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길 뿐 아니라, 도시 발전을 가로막는 행위다. 자신의 무책임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즉각 사퇴함으로써 세종시민의 명예와 자부심을 회복시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은 세종시민의 바램과 함께 단호한 법 집행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이 체포되어 처벌받는 그 날까지, 헌정 질서 회복과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끝)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